

<하기 글은 2016년 6월 26일 삼성전자 소통블로그에 게재된 글입니다>

여러분은 2016년의 상반기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한 해의 중간인 6월은 그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인데요.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도 상반기 활동을 되돌아보고 소통 행보를 이어가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초여름의 태양만큼 열정적인 모습이 돋보였던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6월 정기회의의 현장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지역사회 속으로 찾아가는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지난 6월 16일, 화성시 동탄2동 주민센터에서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6월 정기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날은 박장규 동탄2동장도 함께 참여해 위원들과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회의를 시작하기 전, 동탄2동의 대표적인 행사인 '탄요 축제'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며 즐기는 '탄요 축제'는 동탄신도시 조성 당시 발견된 '탄요(숯을 구워내기 위해 흙이나 돌로 쌓아 만든 가마)' 유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작한 행사인데요. 숯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문화 행사와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해 지역주민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에서 으뜸가는 축제로 거듭나기를 기대해봐도 좋겠지요?



회의 첫 순서는 신임위원을 소개하고 위촉장을 전달하는 시간이었는데요. 김상우(반월동), 이수원(반월동), 최홍병(동탄3동) 위원이 합류해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3기로 활약할 예정입니다. 위촉장을 받아 든 최홍병 위원은 "지역주민들이 행복을 느끼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위원들과 손을 잡고 함께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기존 임원들은 박수를 보내며 신임위원들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이와 주요 민원 내용과 조치 결과를 공유하며 본격적인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각 위원은 지역주민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했는데요.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함께 듣고 해결하기 위해 사뭇 진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취약계층 합동결혼식 △동탄 2동 치동천교 벽화활동 △오케이 365 물품 나눔 등 삼성전자가 지역사회를 위해 진행한 다양한 활동을 살펴보는 시간도 가졌는데요. 특히 지난 5월, 화성시 동부권10개 동이 함께했던 '제2회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배 게이트볼 대회'가 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관련링크: 화합과 소통의 문을 열다! '제2회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배 게이트볼 대회' 현장

앞으로 진행할 △화성 독거 어르신 집수리 △16년 여름 김장김치 만들기 등의 활동도 함께 공유했는데요. 위원들은 제철 김치를 만들어 이웃에게 전달하는 김장봉사에 많은 관심을 보이며, 임직원들의 손길로 정성스럽게 만든 김치의 맛이 벌써 기대가 된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각 동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유토론 시간을 끝으로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신임위원들이 함께해서인지 이번 회의는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분위기였는데요.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에 새롭게 참여하게 된 위원들의 소감을 들어볼까요?



이수원 위원 /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이렇게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의 일원으로서 지역을 위해 봉사할 수 있어 기쁘고 행복합니다. 다른 위원들을 도와 지역주민과 삼성전자간의 소통지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우 위원 /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에 동참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월동 지역주민들을 대표해 임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삼성전자와 화성시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성시 동탄2동에서 진행된 6월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 정기회의의 현장을 전해드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으로도 소통협의회와 함께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기업과 지역사회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힘쓰는 『삼성전자-화성 소통협의회』앞으로도 많이 응원해주세요!